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교회학교 각부’

96년도 여름계절학교 막 올라

6월 6일 새가정부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이어져
교회당과 충현기도원, 기타 장소에서

1996년도 여름계절학교가 막이 올랐다. 지난 6월 6일 새가정부의 제13회 여름 수련회가 충현기도원에서 모인 것을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연이어 교회학교 각부의 여름계절학교가 막이 오른다.

대부분 각급 학교 방학과 여름철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열리게 되는 여름계절학교는 특별 신앙 훈련과 함께 보충 교육의 의미가 다분히 있기에 잘 활용하면 교회학교 운영과 발전, 각 개인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교회학교 각부에서는 여름계절학교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연초부터 강사와 장소 등을 위해 준비해 오고 있다. 예년과 큰 차이없이 영아부-초등5부가

지는 교회당에서, 초등6부부터는 주로 충현기도원을 장소로 사용하게 되고 몇몇 부서가 외부의 장소에서 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사도 주로 내부 강사, 지도 교역자가 담당하게 된다. 교회학교 각부에서는 눈앞에 닥친 계절학교를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 계획, 준비에 여념이 없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는 계절학교이기에 더욱 실효있는 계절학교로 진행하고자 하는 바램 등을 볼 수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계절학교가 연례적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연구, 노력과 함께 학부모와 전 교회적인 관심과 협조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년 여름에는 특히 선교위원회와 선교연구원, 대학·청년부의 해외 단기선교 사역과 대학·청년부 중심의 국내 낙도·오지 전도사역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한결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 청년1부는 이를 연결하여 여름수련회를 해외 단기 선교사역과 국내 낙도·오지 선교사역을 위한 준비 및 훈련, 파송의 기회로 삼고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한 중등3부 수련회의 한 장면)

농어촌 목회자 초청세미나 6월11-13일, 충현기도원에서

를 위한 정보와 생각들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은 세미나에서 서로 토론하는 장면)

지난 6월 11일(화)-13일(목) 2박 3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열린 농어촌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모두 마쳐졌다.

총 41명의 농어촌 목회자들이 초청되어 실시한 세미나에서 농어촌 목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배우고 또한 동료 목회자와 대화와 토론을 하며 농어촌 목회



초등부 연합2부예배 실시

초등부 연합초청전도잔치에 119명이 새로 출석

초등1-6부연합으로 지난 6월 2일에 실시했던 초등부 연합초청전도잔치가 많은 결실을 맺고 끝났다.

지난 6월 2일(주일) 오전 8시 50분과 11시에 실시한 초청전도잔치에 초등1부 28명, 초등2부 18명, 초등3부 16명, 초등4부 11명, 초등5부 8명, 초등6부 38명 등 총 119명의 어린이가 새로 출석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3부예배에 나오는 부모를 따라 온 학생들이다. 따라서 초등부는 매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314호에서 초등부 연합 2부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이 예배는 초등부 여섯 개 부서가 윤

번제로 담당하여 예배를 인도, 진행하며, 분반공부는 해당부서 담자 부감을 중심으로 신입과장과 신입과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거리 관계로 자녀들을 이웃 교회에 출석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초등부에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신설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준비하고 실시한 초등부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인들의 자녀를 교회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여 나갈 방침이다.

교구야외예배

교구별 야외예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지난 봄부터 시작하여 공휴일, 토요일 오후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모인 각 교구 야외예배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

적년으로 교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교구별로 모이는 야외예배는 각 교구 식구들간의 교제와 친교를 위해 모여지고 있다. 예는 교구 안에서도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떤 기회에 서로 서로를 익히고 함께 신앙적 협력의 기회를 삼고자 마련한 것이다.(사진은 지난 6월 8일 태릉 푸른동산에서 모였던 제8교구 야외예배 모습)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4월 4일) 저녁 집회 ○

말세에 하늘의 세 가지 음성

(계 17:15~18: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앓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 17:15 ~ 18:5)

지난 고난주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열어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특별부흥사경회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오신 강사 목사님의 자기 체험과 간증이 담긴 메시지는 온 교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우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어 <주간충현>에서는 부흥사경회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풀어 전하기로 하였다. 연재 순서는 부흥사경회 일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편집자)

다같이 받아 합시다.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혹은 지구촌이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큰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두번째로 들린 음성은 4절입니다. 다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이”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내 백성이 너희는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세번째 음성은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큰 음성 세 가지가 들려 오면서 인류의 종말을 고합니다.

과연 종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바벨론 나라, 즉 육의 나라가 파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강림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제목은 “말세에 하늘에서 들리는 세 음성” 그렇게 제목은 정합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말세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세 음성”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 오는지 모르지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알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그렇게 세 가지 음성이 들려 온답니다. 이 음성을 소개합니다. 이 음성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이날 밤에 우리가 신령한 은혜의 양식을 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약성경을 읽으면 훌륭한 모세를 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광야 40년의 긴 역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모세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시달리는 것을 보면 참 목회라는 것은 어렵구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옆드리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지닌번 모양으로 치지 말고 단 반석을 가르치라 믿음으로 혈기 부리지 말고 성화, 신앙과 성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하면서 결단코 성내지 말고 두 번 치지 말라. 요새 심리학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팍 쌓여 가지고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려고 하니 너무너무 고통이 많아 가지고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데모를 하고 돌을 들어가 내리 치려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는 반석을 안 가르치고 반석을 그만 두 번 내리 쳤어요. 두 번 내리 치니까 약속하신 대로 반석은 물은 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불러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므로 너는 가나



김덕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연재 순서 —

- 첫째날 (4월1일)
 - 저녁 집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 14:6)
- 둘째날 (4월2일)
 -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출 17:1 - 7)
 - 낮 공부 은혜와 은사(고전 12:4 - 11)
 - 저녁 집회 다윗의 신앙간증(시 23:1 - 6)
- 셋째날 (4월3일)
 - 새벽기도회 다윗의 신앙고백(시 51:1 - 15)
 -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창 28:10 - 22)
 - 저녁 집회 징조를 구하라(사 7:10 - 17)
- 넷째날 (4월4일)
 - 새벽기도회 구름기둥 불기둥(출 13:20 - 22)
 - 낮 공부 축복과 복(창 48:1 - 7)
 - 저녁 집회 말세의 하늘의 세 가지 음성(계 17:15 ~ 18:5)
- 다섯째날 (4월5일)
 - 새벽기도회 내 사랑아(아 6:4 - 9)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걸복절을 했지만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공의에 부딪치면 절대로 양보 안합니다. “안된다. 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죽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올라가기 전에 신명기를 강해합니다.

신명기를 강해하면서 모세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두 번 망하고 두 번 회복하고 세번째 망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서양 역사를 읽어보면 프레드릭 대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궁전에 있는 질매르만을 보면 “내게 예수 믿으라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하지 말고 단 한 마디로 나를 예수 믿게 해라” “말미를 주세요” 나중에 와서 “왕이시여 유대 역사를 보시옵소서” 그 한 마디에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바늘은 유대 나라라고 합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류 종말을 말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므로 또 유다가 망하므로 그래서 계속해서 인류가 망한다는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망하고 세번째 망하려고 하면 세계는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적중해서 첫째 제1차 멸망은 레위기서 26장 33절 이하에, 제2차 멸망은 신명기 28장 64절 이하에 말씀이 기록이 되

어 있습니다.

제1차 멸망은 언제입니까? 주전 606년, 주전 896년, 86년, 30년을 걸쳐서 유대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할 때에 선지자 한 분이 나왔지요. 유명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왔습니다. 나라 망하는 예언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많이 울어 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합니다.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울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영영 망합니까? 영영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망국의 설움은 있어도 망민의 설움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는 망해도 너희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됐어요. 참 감사합니다.

마침내 606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손에 들어가고 유대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는 망하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언제까지 망하고 사느냐고 되물었고 하나님은 이에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제1차 멸망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해 가지고 주전 536년에 유대가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벨사살 임금이 천여명의 만조백관을 불러다 놓고 주연을 베풀고 향락을 즐기다가 손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바벨론이 곧 멸망당하리라고 써놓았습니까. 그 손가락이 나타나던 밤이 바로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한 지 70년이 되는 536년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에 맞아 들어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메데파사 군에게 멸망을 당하고 메데파사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 초대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서 성곽을 짓고 성벽을 지으라고 해 가지고 해방이 됩니다.

제2차 멸망은 언제입니까? 제2차 멸망의 예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큰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내가 너희를 안고자 하여도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구나 창창 저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4월 4일) 저녁 집회 ●

여 그 때가 언제쯤 됩니까? 언제쯤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일은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이 모르고 침묵을 지키면 함께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말하고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말씀 안하면 나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무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준비해 뒀으니 과히 염려할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너무 '왜 그럴까?' 하지 말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시한부 재림론자들이 낭패를 당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 그거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날밤에 오실 줄 믿었는데, 아니어요. 아주 낭패를 봤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듣고 믿고, 성경이 침묵하면 함께 침묵하는 겸손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징조가 있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징조대로 이루어져 가며 그 징조가 끝나면 영광스런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시 제2차 멸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와 가지고 둘 하나도 둘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무너졌는데 회복이 언제냐? 그 회복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유대민족은 무너진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국제사회에서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독립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다. 거기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말하기는 시간이 없고 다만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1948년 4월 15일에 유대가 독립했습니다. 모두들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유대가 두 번 망하고 두 번 회복하고 세번째 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겠지요. 말세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해석이 어려운 줄 아나 어쨌든 유대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설리를 저는 믿습니다.

유대가 이처럼 두번째로 회복되어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씩 들쭉 본국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그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흥하고 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가 돌아

오면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즉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예요. 본래 가나안 족속이예요. 가나안 족속의 땅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더럽히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 내고 또 그들 가운데 일하는 귀화를 시켜서 유대인의 종들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이 요즘 현대적인 말로 PLO인 것입니다.

땅은 하나인데 주권을 찾겠다는 사람이 두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아라파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아랍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동을 소련이 지배하고 있을 때 동방 군대 2만만, 즉 2억의 지상군이 중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동으로 가서 철저히 소련을 분쇄하고 동방 군대가 중동을 지배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구라파에 있는 구라파의 동맹국들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중동을 지배하고 있는 동양 사람을 철저히 몰아 내고 구라파 사람들이 중동을 지배하는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중동에 관한 성경 해석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제 사회가 전개되어 지고 그리고 유대 한 복판에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주 믿는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그것을 '7년 대 환난' 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건 큰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때에 유대의 삼분의 이가 죽는 큰 전쟁의 어려움 속에 말려들어 간다

니다.

1945년 8월 6일이 되기 전에 8월 5일에 비행기가 한 대 와 가지고 뼈라를 뿌렸어요. 그 뼈라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일 아침 8시 15분에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원자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망가세요. 도망가는 사람은 삽니다. 30리 바깥으로 나가세요. 30리까지 위험합니다." 이랬어요. 당시에는 뼈라를 받아 가지고 읽고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은 이적행위자로 간주해 가지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전부 경찰서에 다 갔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학생 하나가 그걸 보고 은밀히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 기사가 타임지에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이 중학생이 아는 친척이 30리 바깥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 30리 바깥으로 가는데 좀더 30리까지 나가도 위험하다, 되도록이면 40리 바깥으로 50리 바깥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나 30리 바깥에 가서 머물면서 그날 밤에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8시에 일어나봤습니다. 언덕 위 저 건너편으로 히로시마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참말인가 생각을 하는데 8시 15분 정확하게 비행기가 한 대 날아와서 높은 고공에서 뿜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원자탄이라 이겁니다. 신속히 오지도 않고 낙하산에 매달려 내려오는 거라예. 대포대포 내려오는 것이라예. 내려오는데 1초, 2초, 10초, 20초, 40초, ... 하려고 하는데 천지가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라예. 너무 큰 폭음에 이 학생이 기절을 하고 나자빠져 버렸고 그 히로시마는 일시에 폐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복하고 의논하다가 왜 모두 겁을 먹는 겁니까? 원자탄 그거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안 되가지고 이 학생이 깨어났는데 코로, 입으로 피가 나와 있어요. 이 학생은 일평생도록 그 방사능에 의해 가지고 불구자가 되고 인간 구실을 못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일어서서 보니 히로시마가 완전히 잿바닥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일본이 항복합니까? 보통 해 가지고는 항복을 안하지요. 그래서 나가사키가 또 3일만에 그렇게 되지요. 하니까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조건 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항복한다, 아래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자탄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최후에 마지막에 완결시킨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원자탄이 위력이 있을 줄 알았지만 제렇게도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과학자의 양심으로 과학자의 윤리적인 마음으로 탄식을 하고 글을 하나 썼어요. 죽을 때 글을 하나 쓰기를 '문제점은 진정한 문제점은 사람 마음에 있다' 원자탄을 앞으로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안 쓰기를 원하지만 쓰기 쉽다고 그랬어요. 정치가의 손에 들어가면 나쁜 정치가의 손에 들어가면 쓰기 쉽다는 말입니다. 쓰면 어떻게 되겠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징조가 있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징조대로 이루어져 가며 그 징조가 끝나면 영광스런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니까 아랍 민족들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며 유대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를 저 최종에 빠져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는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자꾸 커진다고요. 6일전쟁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점점 더 굳어지고 커져 가고 강해지는 유대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랍 민족이 1억 2,000만인데 세계 유대인이 다 모이면 2,000만 명쯤 됩니다. 1억 2,000만 아랍 민족이 유대하고 싸워서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니까 소련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소련은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약한 가운데 있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언젠가는 굉장한 새로운 세력을 키워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아랍 민족이 소련에 요구를 하므로 소련이 북쪽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코를 꺾워서 내 백성을 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될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중동으로 내려가 가지고 유대를 점령하고 아랍을 점령하니 아랍은 뒤늦게 아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중

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변화가 되는 그때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직전에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음성이 들려 옵니다. 첫째 음성, 둘째 음성, 셋째 음성이 들려 옵니다. 새로운 하늘이 다가오기 직전 묵은 하늘이 이제 끝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나라여,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촌이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 옵니다.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한답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지구촌이여 눈 깜짝할 사이에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1945년 8월 9일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8월 6일이 무슨 날입니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진 날이래요. 8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것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진 날이래요. 그 책을 여러분이 여러분이 못 읽어 봤을 것입니다. <나가사키로 가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타임지>에도 자세히 나온 적이 것입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4월 4일) 저녁 집회 ●

나? 눈 깜짝 사이에 지구가 멸한다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자탄 쓰시겠어요? 제가 예화를 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 놓은 원자탄의 위력이 그렇게 지구를, 지구의 사는 사람들을 멸망을 시킬 뿐 아니라 지구 자체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굉장한 위력을 가진 인간도 지구를 멸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네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성에 죄악이 만연하므로 내가 그곳을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지요. 외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할 때,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튿날 동이 뜨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여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하였도다” 망해 버린 것입니다. 들로 꺼져가지고 사해로 변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성은 원자탄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산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 평지에 무슨 화산이 있나?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심판의 불로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습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사람도 사람의 과학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너무나 너무나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마지막에 인류의 죄악을 보고 이 역사를 종말을 짓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넘실거리며 다가오기 직전에 이 지구를 불로써 처리하시리라 내 백성아 들으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나라여, 이 지구촌이여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들어가시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준비해라 이겁니다. 신앙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67장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뭇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4절 한번 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재비를 힘입으리

한번 더 받아 합시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지구촌이여,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들려 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 원자탄 안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지만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했지만, 소원이지만,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지구촌이 “일시에 망하였도다” 하는데 뭐 가지고 일시에 망합니까? 뭐 가지고 일시에 지구가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원자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일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지구촌이여,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무너졌도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무너지리라”라며 현재사가 아니고 “무너졌도다”며 과거사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직전에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음성이 들려 옵니다. 첫째 음성, 둘째 음성, 셋째 음성이 들려 옵니다.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하늘이 다가오기 직전 묵은 하늘이 이제는 끝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나라여,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촌이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 옵니다.

그 음성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되 가지고 두번째 들리는 음성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다같이, “내 백성아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말세에는 죄가 있어요. 말세의 죄. 말세에 여러 가지 죄가 많지만 큰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같이, “내 백성아 너희는 음녀의 죄악에서, 너희는 짐승의 죄악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제일 큰 죄가 두 가지예요. 첫째, 음녀입니다. “음녀”가 무엇입니까? 영이 성경을 읽어보면 “기생”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 “정조 관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어떤 면에 빠지는 귀한 예절은 정조 아니겠습니까? 봄이 오면 앞동산에서도 오고 뒷동산에도 오고 하듯이 말세가 되면 전 지구가 음란한 시대가 와요. 이것은 견줄 수가 없는 음란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망했었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하시는 분은 소도마이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성연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한 부

부에 대해서 주시는 계명이 있지요. “간음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네 아내를 사랑해라”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그 언어가 너무 빈약해요. 그 표현의 정도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말하면 “결혼해서 너 아내만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사람으로 저 사람 같은 나와 반려자로 삼아도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선택을 해요. 선택적 사랑. 따라서 한 번 선택을 하면 그 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혼인을 귀히 여기고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받아 합시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

“내 백성아 들으라 너희는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말세가 되면 이상한 죄 중에서 이 음란한 죄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도 그 죄악에 물들여 간다 이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남자가 결혼해서 살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남자가 풍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어서 남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돈 많이 벌어서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 자선 사업도 하면서 가진 것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부간에 절대로 남에게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요. 부부만 가질 수 있는 사랑이요. 간음죄 지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 가 가지고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많이 받고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님, 놓으세요. 놓으세요. 주인이 이 집의 살림은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안 맡겼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지요. 여자가 나빠서 그런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중에는 나 죽는다 하고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에

셋이 뭐라고 그랬어요? “놓으세요.” “못 놓는다.”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요 나를 놓으세요” 하고 그는 옷을 벗고 도망을 가서 징역을 살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할 지라도 그 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받아 하세요.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결혼을 안 하고 독신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해 가지고 자기 아내만 자기 남편만 하는 수절하는 정조를 지키는 것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내 백성아 너희들은 음녀의 죄에서 나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오늘 밤에도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가지 말고 진실로 뼈아픈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간음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연애입니다. 간음죄는 자연의 질서를 지키지만 동성연애는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소도마이트 소도마이트, 그것은 간음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신학자 바르도 같은 신학자는 윤리학을 쓰면서 “음죄도 중요한 죄지만 그러나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고 심판의 불을 받아야 할 중한 죄가 된다”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같이, “내 백성아 너희는 저희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제가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30여년 전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시골로 다녔는데 한번은 청송에 갔어요. 청송, 의성, 안동 지방은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양반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청송 어느 동네에 가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달구지도 지나갈 만한 큰 넓은 길인데 부인 하나가 물통이를 이고 오다가 나를 저 팔찌잡치서 보고는 깜짝 놀라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쳐러는고? 길에 쳐러 넓은데 왜 저리 돌아서는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쫓아 가는 듯이 쫓고 뒤를 훑음 돌아보니 그제서야 가는 겁니다. “그 참 이상타” 생각하고는, 그래 집에와 가지고 어머니에게 물어 봤어요. “어머니 이래이래 돌아보디다.” “아이고 니가 뭇사?” “아네 그러면 목사가 어찌란 말입니까?” “그게 뭇지도 모르제. 그게 내외하는 것이다.” 옛날 사람은 가다가 남자를 만나면 놀라서 썩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부흥회 다닌다고 야, 치워 버려라.” 하면서 아이고 나는 얼마나 귀중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책을 읽어 봤어요. 남녀 정조 관념에 대한 글이었습니

다. 옛날 신라 시대에 부부간에 살다가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4월 4일) 저녁 집회 ●

남편이 죽으면 살아 있는 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시신을 화장하는 하는데, 화장하는 나무 위에 남편의 시신을 올려놓고 눈이 멀듯 멀뚱한 부인도 같이 었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 없었대요. 다 태워 죽여요. 하늘 무너지는데 땅이 어디 있나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옛날 같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려 시대에 들어오면서 너무 과하다, 그럴 수가 있나 그래 가지고 평생토록 시집 안 가고 방안에 들어앉아서 침봉이나 하고 기껏 간다는 것이 화장실이나 가고 그래 두문 불출 한다는 것입니다. 두문불출 들어 봤지요.

그것도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너무 과하다, 그럴 것 뭐 있나 그래 가지고 눈감아 주는 것이 뭐했어. 보쌈을 하는 풍습이 생겼어. 열 사람이 지키는데 한 사람 못 이긴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지키는데 몇 사람이 지키는데 늘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비오는 날 밤이나 눈 오는 날 밤에는 가서 자야지 지킬 수 있나. 그날 밤에 불문 곡절하고 과부 집에 뛰어 들어와 가지고 입틀어 막고 묶어서 거꾸로 지고 나와 가지고 홀애비 방에 갔다 집어 넣어 버리면 시집가는 것입니다. 그걸 허락했어. 눈감아 줬다 그겁니다.

그러다가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그거 너무 과타, 일본 사람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 와 가지고 인권 그리하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법도 없고, 팔자를 그래 고쳐 주는 것도 없고, 길 거리에 다니는데 얼굴이 부셔서 안 되요. 뭐 덮어썼지요. 천의를 덮어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과하다, 벗어라 해서 벗은 겁니다. 벗었어. 그러다가 길 거리에서 마주치면 청송같은 데서는 싹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 하다가 6·25전쟁이 터졌어요. 세계 군인이 다 들어 왔어요. 이거는 전혀 달라지는 세계입니다. 남녀 공학, 공학요?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공학하지 여러분 보세요 여학생 남학생들이 손을 잡고 미스터 김, 미스 김 어더라고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장가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됩니다. 남의 처녀 손을 잡다니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밤중에 나이트 클럽에 가 가지고 춤을 추고 그것도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제가 서울 시내 어느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차를 기다리는데 여학생이 하나 제 옆에 와 가지고 "목사님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 말을 너무 지나치게 하던데요." "그래 우에 하 드노?" "그래 남자가 같이 지내다 보면 몸 관계도 하는 거고, 애가 생겨서 귀찮지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찬양대 대원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설교 들어도 말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보고 더 옳다 그르다 말 못하지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와 버렸습니다.

정조를 그냥 공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것을 두고 보실런

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성정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들으라 너희는 저희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다같이, "내 백성이 너희는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실로 경건하게 살아 드려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다같이,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너희는 짐승의 죄악에서 나와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둘째로 이 말씀에는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 사람입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이 있지요. 얼굴은 사람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중심은 짐승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제가 문학 책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무신론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형은 무신론자

것입니다.

"내 백성이 들으라. 아버지 받아 오라는 술에다가 독약을 타서 그거 마시게 해서 속절없이 죽게 하는 것을 비롯해서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같은 것 말세에 무신론 사상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죄를 자행하는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 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을 명문대학에 보낸 것 기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 좋은 학교에 못 가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의 자식들이 되어야지, 믿음이 없는 자식대가리만 굽어져가지고 어찌란 말입니까? "아버지 독약으로 죽인 그 아들, 도끼 가지고 죽이는 그 아들, 내 백성이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큰 음성으로 셋째로 들려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고 동생은 신부입니다. 형이 동생을 보고 "자네, 하나님, 믿음, 천당, 지옥 그 되지도 않는 소리 많이 하지 마라. 그런 것 다 없다. 필요도 없다." 그러니 신부되는 동생이 "형님, 그래 말하면 안 되요. 천당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니 불쌍하데이. 니 불쌍하데이. 천당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보니 불쌍타." "안 그렇습니다. 형님이 불쌍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더니 이제 짐승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말이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 하지 말며,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절대시하는 모양인데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지역이 변해도 절대로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런 윤리라는 것은 상황에 달려 있어. 아버지가 내 출세하는데 아버지가 내 출세하는데 방해가 되면 아버지 죽여야 돼." 아버지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끼로 때려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사상입니까? 그것은 짐승 사상, 그것을 말하는

계명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술하에 있는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요? 다같이,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너희들은 짐승의 사상에 참여하지 말며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 문제로 제 27회 총회가 신사 참배를 가결했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두고 두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문제인데, 한국에 총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총회적으로 신사 참배를 부결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신사 참배를 부결한 그 교단에 중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는데 어느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 신자들의 발걸음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 생활이 됩니까? 십일조 가지고 사는 생활 아닙니까? 양떼들이 드리는 십일조 가지고 사는데 교회에서 현금 안 하고 십일조 안하니 생활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굶은 날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1주일을 굶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굶고 있는데 자기집 동네 뒤가 전부다 채

소 밟이고 무우 밟이라. 배가 고파서 방에 누워 있는데 "무우 한 점에 얼마요. 채소 한 점에 얼마요." 하길래 일제 시대에 경성 제대 영문과를 다니던 영재인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을 다 가고 나면 내가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 되겠다. 이삭 주워서 삶아 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동생들 주고 나도 먹겠다. 그것으로라도 배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잦아지고 나서 보니까 밤 1시나 2시나 됐겠지요. 손을 더듬더듬하면서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어 가지고 배추는 손안대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래 모으다가 한 바구니 갖다 놓고 두 바구니 갖다 놓고 하는 찰나에 여명이 밝아 오는 것 같습니다.

망연자실 동쪽을 바라보고 "아무리 어두워도 칠혹같이 어두워도 빛 앞에는 꿈쩍 못하는구나. 교회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런 어두운 시대를 만나서 교회도 같이 어두워졌으니 그게 교회잖나. 아니지. 나는 공산주의자 되겠다. 자생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 되겠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겠다. 이름만 있는 교회 무슨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됐어. 사상적으로 자생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 자체들 전부 얘기해 가지고 공산주의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그 이하의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이런 굉장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이를, 사흘, 나흘을 굶는 데모를 해 본다. 어렵도 없는 소리예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받아 하세요. "내 백성이 너희들은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예를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GNP 10,000달러 시대에 삽니다. 선진국 대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돌로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다같이, "내 백성이 너희는 짐승의 죄악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우리 신앙하고 입장이 좀 다르지만 윤리학에서 그는 말하기를 "성 문제, 먹는 문제, 식색(食色)이 위대하다"고 말했어. 이것은 너무 이기기 어렵다, 식욕과 색욕을 이기려면 영웅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4월 4일) 저녁 집회 ●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생애에 걸쳐서 경건하게 살아 드린다는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자금 이후로 주를 높이다가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받아 하세요. "자금 이후로 주를 높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자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날마다 날마다 정욕을 이기고 사는 것은 더 어려울런지 모릅니다. 더 어려울런지 모릅니다. 한번 더, "내 백성아 너희는 음녀의 죄에서 나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다같이,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서, 음녀의 죄에서, 짐승의 죄에서 나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뜻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에게 힘입으리

죄송합니다. 했던 말씀 자꾸 받아 하라고 하니 여러분이 그만 지루한 감을 느낄런지 모르지만 받아 하소. 받아 하소. 속에다 새기세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같이 한번 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나라여 지구촌이여는 꺾어질 사이에 망하였도다" 두번째로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세번째 음성입니다.

세번째 하늘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수천 수만의 성도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큰 우렁찬 재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헤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 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소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다같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큰 음성으로 셋째로 들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송이 우렁찬 오케스트라 이 우주에

큰 찬양이 불려지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며 그 신부 그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받아 하세요. "그 아내 그 아내가 예비 하였도다" 예비되었습니까? "주여 좀 덜 되었습니까" 그러나 덜 되면 안됩니다. 지금 덜 되면 안돼요. 지금 덜되면 안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받아 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도다 그 아내가 준비하였도다"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었어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고 유대가 망하는 것을 보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만나는데 사람은 지나가고, 사건은 지나갔지만 지은 죄는 차곡차곡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요. 사건은 지나가고, 사람은 지나가고, 사실은 지나갔지만, 지은 죄는 심령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릇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다같이,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그릇 준비했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거룩한 그릇입니까? 빈 그릇입니까? 그릇이 빈 그릇이 되면 안되요.

그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이며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듯 같도다"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

능력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고 합니다. 좀 길어서 탈이지 내가 잘해서 잘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전에 나올 때에 그 시를 외워요.

한번 받아 합시다. "여호와와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주여 성결치 못한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출렁출렁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시여 불을 붙여 주세요. 세번째는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 붙은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으니 이는 봉사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성령의 불,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 치는 은사,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여, 이날 밤에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비되었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내 들려 왔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지구촌이여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악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아 하세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미련한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불과 함께 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릇은 우리들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야 하는데 기름은 다름 아닌 성령의 기름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성령을 말합니다.

든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도 아끼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하물며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날과 그 일시는 알 수 없지만 징조를 보아서 안다고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받아 하세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미련한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불과 함께 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은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받아 하세요.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몇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한번 더,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자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릇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배움을 말합니다. 받아 하세요. "큰 집에는 굵 그릇도 있고 온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즉 주인의 귀하게 쓰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심령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세월이라는 시간을 흘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사는 데

슴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 하세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을 불이라고 그랬다가 성령을 생수라고 그랬다가 성령을 기름이라고 하는데 왜 기름이라고 했을까요? 기름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천물 위에 기름 띄운다"는 말 들어 봤지요.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지는 것, 받아 하세요. "거룩하게 살아지는 것" 거룩하게 살아 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우리 교회는 3층 건물인데, 3층에 올라가면서 시를 외웁니다. "여호와와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그 시편을 외우면서 "아버지여 어린 심사가 성결치 못하니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성결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강단에 올라 왔는 겁니다. 강단에 었드려 가지고 무슨 기도합니까?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이며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신다고 하는데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설교를 영감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설교 듣다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1 *

잃어버린 삶을 찾아드립니다

윤 정 훈
(대학부 운영간사)

바쁘게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삶의 무게에 못 이겨 주저앉기도 한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 속에 자신의 삶을 매꾸어 보지만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내가 지금 무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남겨둔 삶의 자리에서 난 어떤 존재였던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이 만들어 온 모든 삶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채 홀로 서기만을 연출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대학생들은 대학시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한다. 그가 크리스천이라면 더욱 그 시간이 소중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만의 홀로서기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법을 바로 알지는 못한다.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알게 되고 학교, 교향, 국가라는 공동

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을 배운다. 유독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할 때 그는 젊음의 시간에 귀중한 것을 잃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생의 비전을 품지 못할 때 그는 살아갈 모든 삶을 어느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른다.

충현교회를 다니며 대학을 다니며 아직도 대학부는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가? '성령 비전 2000'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기 위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젊은이들이 부럽지 않은가? 대학부에 속하지만 하여도, 대학

부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것이고 삶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아름답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충현대학부에 속하지 않은 젊은이가 있다면, 아직도 자신의 삶을 잃고 있는 대학생이 이 교회에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아니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위해서 대학부를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 충현기도원에



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가진다. 벌써부터 가슴이 떨린다. 내가 차지하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모든 것을 말씀으로 들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되길 간절히 노력한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삶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만이 그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아직도 젊음의 때에 자기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 진정한 해답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이 오길 소망한다. 평생의 삶을 위해 4일이란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은 너무도 쉽지만 이를 결단하기

농어촌 목회자 초청세미나에
참석하고

떠나온 모든 이가
돌아갈 때를 어스름 만나면
언제나 고향을 첫 생각합니다.

그곳에 먼저 돌아간
용감한 목사님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의 어린 기억 그대로
그들은 거친 농부, 주름진 이마였습니다.
서로 손잡으며 말하는 듯합니다.
"여보게, 우리 용케도 아직 서 있음일세, 그러"

금의 환향 꿈 때문에
비어버린 것은 고향의 교회라는군요.
그러니 웬만하면 고향 교회로 돌아갑시다.
조금 여력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한 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또 떠나갈 이들의 뇌리에
그리운 언덕 위 교회를 살며시 심으려고
그분들은 터덜터덜
고향 버스로 향합니다.

장 경 철

(목사, 전도위원회, 제6교구 지도)

는 무척 어렵다. 주일 1시에 복지관 지하 2층 마르다홀로 대학부 집회를 참석하기는 쉽지만 그 첫발을 옮기는 것은 무척 어렵다. 하지만 귀한 공동체를 얻고자 하고 자신의 삶이 참으로 소중하며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젊음이의 패기로 그 결단을 하길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길 기도해 본다.

교역자들은 장례예식에 자주 참여하고 집례를 한다. 특히 충현교회 교역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필자도 여러 번 장례예식에 참여하여 집례하면서 예수님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교훈을 절감하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

1994년도 12월에 처음으로 교구를 맡아마자 장례식이 났다. 그것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말이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면 교역자들이 예배만 인도하면 되지만 집에서 돌아가시면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군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번 장례를 집례하였지만 격절 수습은 하지를 않았기에 조금은 긴장하고 집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을 다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방면을 뻗는데 냉면속에서 할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오르니 여쭙는 말인가.(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얼굴이 생생하다)

1995년도 1년 동안 14차례나 직접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제는 제법 노련하게(?) 되었지만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역시 어려운 일이 생긴다.(초음을 할 때 배설물을 받아내는 일 등) 그러나 마흔 장례식마다 입관과 하관을 할 때 나도 저렇게 관에 들어갈텐데... 나도 저렇게 고향으로 덮일텐데...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바로 살 것을 다짐해 본다.

올해는 2월 한달 동안 7번이나 장례

가 나서 4번은 직접 집례를 하고 3번은 가족이라서 다른 교회나 교구에서 집례를 하기에 조문을 하였다. 그중 어느 한 가정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가장 보람있었고 필자도 은혜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한 가정의 어머니께서 임종을 앞두고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 하길래 토요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며

정검다리

언제 불려도 잘
준비를 하는 성도

현 상 민

(목사, 예배위원회, 제7교구, 군전도회 지도)

구원의 문제와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다.(이분은 여학교 시절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지만 결혼을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작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은 분이시다) 그후에 가족으로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는 소리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는 말을 듣고 감사를 하였다.

다음날 주일 하루종일 예배를 드린 후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 제각에 운명 하셨다는 말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갔

더니 병실에서 영안실로 시신을 운구하려 하여 이왕이면 예배를 드리고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잠깐 양해를 구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고인이 입을 벌리고 운명을 하셨길래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게 하고 기도하면서 5분여 동안 잠고 있었다. 후에 들으니 그 행동에 모든 가족이 감동하여 그후로부터 장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남편과 아

장례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 도중 남편되시는 분이 "목사님 말씀에 내 아내는 천당갔고 나도 천당을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백을 하였다. 그 다음 주부터 남편과 아들, 딸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새신자부 적응반을 수료하였으며, 천주교를 다녔던 딸은 개종을 하였고, 남편과 아들은 곧 학습을 받을 예정이다.

장례식을 하면서 목회자의 육신은 힘들지만 이런 결실이 있을 때에 목회자는 살맛이 난다. 때면 장례때마다 이럴 수는 없지만 대개는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더욱 열심히 다닐 것을 결심을 한다. 또한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다짐을 하는 시간에 된다.

우라도 언제 하나님께서 불려가실지 모르기에 언제 불려도 잘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도록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 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들, 딸들 중에 딸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다니고 모두 불교와 천주교, 무교 신자였지만 모든 면에 합조적인 것을 지금도 감사한다)

영안실로 모시려는 것을 권면하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정성스럽게 안치할 하고 돌아오니 새벽 3시였다. 교구에 연락을 하여 많은 교구 식구들이 부지런히 찾아 뵈고 입관과 출관 및 하관을 거행하면서 참석한 성도들이나 모든 가족이 은혜를 받았다.

토막소식

▶ 초동4부는 오는 6월 30일을 새친구 초청잔치의 날로 정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

▶ 장년3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를 제2차 부흥기간으로 정하고 출석 회원 500명을 목표로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다음 주일(23일)에는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디모데후서 3장 1-17절이다.

▶ 가브리엘찬양대에서는 성경암송대회와 성경 읽기 다독상 시상을 한다. 성경암송대회는 오는 6월 27일(목)에 열릴 예정인데, 범위는 요한일서 제5장이다. 또한 7월 7일(주일)에는 96년도 전반

기 성경읽기 다독상 시상이 있으며 4복음서를 필사한 대원들에게도 상품을 주어 전대원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성훈련에 부단히 힘쓰고 있다.

제7교구 경찰병원에 신앙서적 및 설교테이프 기증

제7교구(교구장 마성락 장로)는 경찰병원에 신앙서적 300권과 설교테이프 65개를 기증하였다. 이는 경찰병원에 입원한 한 성도가 읽을 만한 신앙서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교구에서 수집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9일 주일에는 지역별 가족 사진 전시회를 열어 각 가정의 식구들을 익히는 좋은 시간도 가졌다.

충현복지관 재가 정신지체인을 위한 징검다리교실 개강식

6월 8일(토) 복지관에서는 학교나 그 밖의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 재가 정신지체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될 '징검다리교실'을 개강하였다.(우측 사진)

징검다리교실은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성인 정신지체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 교실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열린다. '징검다리'라는 의미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정신지체인들이 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이웃과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을 담당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교실의 교육 내용도 생활 훈련, 사회 적응 훈련, 대인관계 훈련, 인지·학습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은 올해까지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개강식이 끝난 후 처음 만나는 어색함을 풀고자 간단한 다과와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진행되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기간 동안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정신지체인들이었지만 모두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인 중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고등부·청년1부 **총동원 전도 운동**

고등부 / 6월 23일, 청년1부 / 6월 29, 30일
다양한 행사와 치밀한 계획으로 준비

교회학교 고등부 및 청년1부가 교회내에 산재되어 있는 고등학생들과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동원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부는 6월 23일을 총동원의 날로 정하고 500여명에 달하는 장기결석자를 전원 출석시킬 계획을 가지고 담임교사와 학교별 모임인 돌로스 조직을 전원 가동하여 이 일에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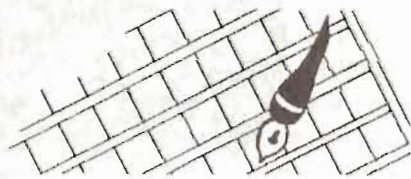
청년1부는 교회내 20대 청년을 청년1부로 불러 모아 20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마련된 청년1부에서 함께 교육 받으며 함께 교제하며 지내기를 바라며, 또한 여름에 있을 단기선교사

역과 국내 낙도·오지 전도 사역을 위해 동참하기를 원하며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1부에서는 6월 29일(토) 오후부터 선교 바자회, 일일 찻집, 찬양 콘서트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6월 30일은 총동원 주일로 계획하며 교회내의 20대 청년들과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교인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며 협조할때만 가능한 일이다. 피차 위하여 기도하며 진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간충현 (계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계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신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산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간충현(계간충현)으로 보내주시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원고 종류 / 간증, 수필, 시(동시), 제언, 일기, 서간문, 서평, 이런 일은 고집시다, 각 부서 소식, 지원교회 및 선교지 탐방, 만평, 소설(동화), 콩트, 기타

2. 원고 마감 / 주간충현은 마감입니다. 다만 시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종류는 게재될 전 주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십시오.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독일 육호기 선교사 *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하심이 충현교회와 선교위원회 그리고 회원님들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 독일은 태양 빛이 그리워지는 날씨입니다. 매일 비바람이 불며 흐린 날씨가 연속되므로 짜증과 우울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뜨거운 고국 날씨가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24)는 바울 사도의 고백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드립니다.

1. 지난 고난주간에 비스바덴교회와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는 전교인 연속

금식기도를 실시했습니다. 금식기도 당번을 작성하여 누구든지 한 분도 빠짐없이 금식기도를 하게 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금식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옆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금식기도를 함께 잘하였습니다. 오히려 금식기도를 하고 나서는 재미있는 간증들을 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에도 적극성을 띠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속금식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의 훈련을 갖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들이 연합하여 부활절 새벽예배를 프랑크푸르트 오스트 파크에서 드렸으며, 낮예배에는 비스바덴교회에서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성례

식도 거행하였습니다. 이날 어른 학습 2명, 세례 1명과 아기 3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3.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귀중성과 부모와 자녀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면서 온가족이 함께 가족단위로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른 예배와 어린이 예배를 각각 따로 드렸지만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밖으로 예배가 은혜로웠고 가족들도 그렇게 감격하며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천국 가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글로써는 표현하기 어려운 참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진지하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는 손들을 서로 잡고 기도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설교자는 물론 모든 이들이 동참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4. 1977년 5월 8일에 세워진 비스바덴교회는 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동안 더욱 충성하지 못하고 크게 부흥시키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한국 음식을 대하면서 즐거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5. 비스바덴교회에서는 그동안 대심방이 실시되었고, 매주 토요일에는 조별로 각종 전도지들을 가지고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1. 비스바덴교회와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도록
2. 6월 첫째주일에 실시한 총동원주일을 계기로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3. 7월 22일 ~ 8월 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실시되는 여름가족수양회가 성령충만하게 치러지도록

* 청원사항

- 7월 22일 ~ 8월 2일 실시되는 여름가족수양회에서 찬양 인도와 청소년을 지도할 교사를 찾습니다. 단기선교를 위하여 봉사하실 분이 계시면 연락 바랍니다. 수양회 기간(두 주간)에 숙박은 제공됩니다. 선교사역에 봉사하실 분은 곧 연락 주세요. ☎ 49-6109-36850, 팩스 49-6109-36695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1996년 5월 22일
독일 주재 육호기 선교사 올림